



W W W . S f a c . o r . k r



서울문화재단

문화 + 서울

2007 11

통권 9호

문화 + 서울  
 11  
 2007



특집 **서울 시민은 문화에 목마르다**  
 문화 + 현장 놀이터는 우리의 미래다  
 인터뷰 **젊은 예술은 우리가 이끈다** 청소년문화벤처단  
 나는 1% 확신에 인생을 겁니다 배우 조재현  
 서울의 문화공간 **홍대 앞 다시 보기**



www.



sfac.



orkr



Although our eyes, as all we know



# 서울열린극장 창동

## 11월 공연 안내



### 국내 최초 전통 연희극

#### 타이거 헌터

날짜: 2007. 11. 3(토)~4(일) ◆ 시간: 3일(토) 오후 4시, 7시 30분 4일(일) 오후 6시 ◆ 주최 및 주관: 극단광대 ◆ 후원: 서울문화재단 ◆ 관람료: 무료 ◆ 관람 연령: 7세 이상 관람 가능 ◆ 문의: 02-585-1544

**기획 의도** 전통예술의 현대적 수용을 목적으로 공동 창작된 (타이거 헌터)는 한국 고유의 민화 <금강산 포수>를 모티브로 현대의 무대기술 3D아트와 고성오광대, 봉산탈춤, 사물놀이 등 20여 가지의 전통연희를 집약한 총체적 전통 연희극이다.

**내용** 금강산에 호랑이 잡으러 갔다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아들이 길을 떠납니다. 금강산 호랑이는 호랑이 중에서도 사냥기로 유명하여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금강산에 도착한 아들은 한 노인을 만나는데, 노인은 "금강산 호랑이는 다섯이 모여 하나가 되며, 늑은 대가리를 조심하라"고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하고는 배고프면 먹으라고 감자를 줍니다. 아들은 다시 길을 떠나고 마지막 시아비 호랑이와 결투를 벌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들도 시아비 호랑이의 먹이가 되고, 뱃속에서 탈출을 시도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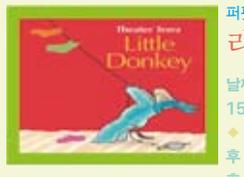


### 한빛예술단의 찾아가는 음악회

날짜: 2007. 11. 6(화) ◆ 시간: 오후 7시 ◆ 주최 및 주관: 시각장애인 뮤직컴퍼니 한빛예술단 ◆ 관람료: 무료 ◆ 관람연령: 만 7세 이상(취학아동부터) ◆ 소요 시간: 120분 ◆ 문의: 02-989-3148

**기획 의도** 서울특별시와 지원하는 순회공연으로 도봉구민을 위한 무료 연주회이다. 출연하는 한빛예술단은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역량을 갖춘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전문연주단으로 비장애인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세계적인 시각장애 음악인을 양성함은 물론, 실력으로 인정받는 세계 정상급 연주단으로 발전, 국내 및 세계를 무대로 지속적이고 활발한 연주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내용** '한빛브라스앙상블'은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관악합주단으로, 2003년도에 창단되어 매년 2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연주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큰 감동과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빛체리티티합창단'의 단원들은 시각장애를 입어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들의 맑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부르는 노래는 더 많은 평안과 희망을 나누어 준다. '한빛빛소리중창단'은 노래에 특출한 재능을 지닌 13세 이하의 어린 시각장애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과 영혼을 울려 감동을 자아낸다. '한빛타악앙상블'은 클래식과 국악의 크로스오버를 통하여 타악의 질적 향상과 대중화를 지향하는 팀으로 다채로운 경험과 지식 그리고 상상력을 토대로 음악의 특수성과 가능성을 연구하며 타악에 관한 퍼포먼스를 실현하고 있다.



### 퍼핏뮤지컬 리틀 동키

날짜: 2007. 11. 15(금)~25(일) ◆ 시간: 평일 오후 3시 / 주말 오후 2시, 4시 (월요일 공연 없음) ◆ 주관/주최: 서울문화재단, 파란호두 / 서울열린극장 창동, 파란호두 ◆ 후원: 서울특별시, 네덜란드 대사관 ◆ 관람료: 특별석 30,000원, 일반석 20,000원 ◆ 관람권 판매: 티켓링크 <http://cafe.daum.net/donkey> (창동 회원 20%(동반 1인까지) 할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50%(현장 구매시 복지증 제시에 한함, 동반 1인까지) 할인) ◆ 관람 연령: 만 36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 소요 시간: 60분 ◆ 문의: 02-594-4025

**기획 의도** 상상 속에 존재하는 9미터 황새를 극장 안으로 불러들인 마술 같은 무대. 뮤지컬 <리틀 동키>는 물질과 우정이라는 상반된 가치 중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누고 싶지 않은 것도 다른 이와 함께 공유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점, 엄마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가족애와 모험심 등 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가르침을 꼬마 당나귀의 하루 동안의 에피소드에 잘 버무려 두었다.

**내용** 어느 날 갑자기 불어 닥친 돌풍 때문에 엄마 당나귀와 꼬마당나귀 단둘이 사는 당나귀 가족의 집이 부서져 엉망이 되고, 엄마당나귀의 뱃속에는 바람에 이리저리 날아가 버린다. 엄마당나귀의 오래된 친구인 오소리와 염소는 당나귀 가족을 도와 난장판이 된 집을 정리하지만 이리저리 바람에 날려 잃어버린 양말 한 짝은 찾지 못했다. 양말의 주인은 황새 마라부의 것. 9미터나 되는 큰 키 때문에 마을친구들 모두가 두려워하는 아프리카 황새 마라부. 양말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면 불같이 화를 낼 텐데, 엄마당나귀 정말 큰일 났다. 언덕에서 야크와 놀던 꼬마당나귀 리틀 동키는 잃어버린 엄마의 양말을 찾기 위해 산 너머 마라부의 집으로 모험을 떠나는데.....



### 곳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타악 이미지

#### 염혹은곡

날짜: 2007. 11. 10(토) ◆ 시간: 오후 4시, 7시 ◆ 주최 및 주관: 곳치는 사람들 해당화 ◆ 관람료: 일반 20,000원 학생 15,000원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 ◆ 소요 시간: 80분 ◆ 문의: 02-444-2940

**기획 의도** 곳(종물)을 사랑하는 전문 타악인으로 구성된 해당화는 전통적인 굿이 갖는 제의성, 신비성, 신명성, 종합 예술성 등을 새로운 시각과 해석으로 무대화한다. 2006년에 네 개의 타악 창작품으로 구성된 진혼 이야기를 공연하였다.

**내용** 2007년 곳치는 사람들 해당화는 현대인의 울 곳조차 없는 답답한 마음을 굿의 신비성에서 찾는 염(念) 혹은 곡(哭)을 가무악이 어우러진 이미지로 구성된 타악 창작품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다.



### 뮤지컬 운동주

날짜: 2007. 11. 29(목)~30(금) ◆ 시간: 29일(목) 오후 8시 30일(금) 오후 7시 30분 ◆ 주관 및 주최: 아를뮤지컬음악극단 ◆ 관람료: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초중고생 10,000원) ◆ 관람 연령: 만 7세 이상(취학아동부터) ◆ 소요 시간: 120분 ◆ 문의: 02-765-0703

**기획 의도** 조국을 빼앗긴 이 땅의 굴욕적인 어두운 시기에도 별과 희망을 노래했던 운동주는 그 시대 민중의 가슴을 울렸고, 희망을 주었으며, 억압을 항거하며 맞서 저항할 용기를 주었다. 이제는 억압받던 시대를 뛰어넘어 수탈당하는 민족 고행의 노래가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민족사관 의식과 시대정신의 책임을 되묻는다. **내용** 운동주가 태어난 북한도 명동춘은 함경북도 회령에서 이주해 입구어낸 함일독립운동의 기지였다. 13살의 나이에 <새명동>이라는 등사지 문예지를 발간하고 이 무렵 썼던 동시, 동요들을 발표한다. 연희전문학교에 입학 후, 일제의 탄압이 심해져 우리말과 글의 말살정책으로 인해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북아현동에서 누상동 소설가 김승 집으로 하숙집을 옮겨 다니며 우리말과 글로 시를 노래한다. 1941년 운동주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다. 동경 립교 대학 영문과에 입학하였지만, 교도 도시사 대학 영문과로 편입하여 일본에서 문학과 시를 공부하며 뜻을 함께하는 주변 지인들과 항일 저항운동을 해 나가는데.....